

제8과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5) 다윗 언약, 새 언약

서론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1:1)”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 살피야 함
2.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하여 멸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약속

I. 다윗과 맺은 언약: 왕국 언약 (삼하7:15-17, 7:24)

1.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반역 (삿2:6-10)

삿2장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 여호와와 종 눈 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 1)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 가나안은 농경 사회.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바알 숭배에 빠짐
- 2)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 반역, 하나님의 징계, 회개, 평온, 반역의 cycle이 반복되어짐

2. 다윗의 왕국과 다윗 언약

1)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행13:22~23):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행13:22-23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 다윗 언약 (삼하7:15-17, 24):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

A.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7:11b)

B. 다윗 언약 (7:14-16):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

삼하7:14~16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3) 성전 개념 (고전3:16): 건축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고전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II.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새 언약

1.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 열왕기, 역대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구분하는 기준

2.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감

- 1) 솔로몬 노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 2)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삶:
회개 촉구 but 거부
- 3) 멸망: 북쪽 이스라엘 BC. 722년에 앗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 포로로 끌려감
- 4) 귀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1차 (BC. 536년, 스룹바벨), 2차 (BC. 458, 에스라), 3차 (BC. 444, 느헤미야)
- 5) 성전 건축 (학개, 스가랴) 잠시 영적 부흥 (에스라, 느헤미야) but 타락

3.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

- 1)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깨뜨린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

렘31:31~32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 내용 (렘31:33~34 / 겔36:25~28 / 단:7:13~14): 마음의 법 (새 영과 새 마음), 죄 씻음. 영원한 왕

렘31:33~34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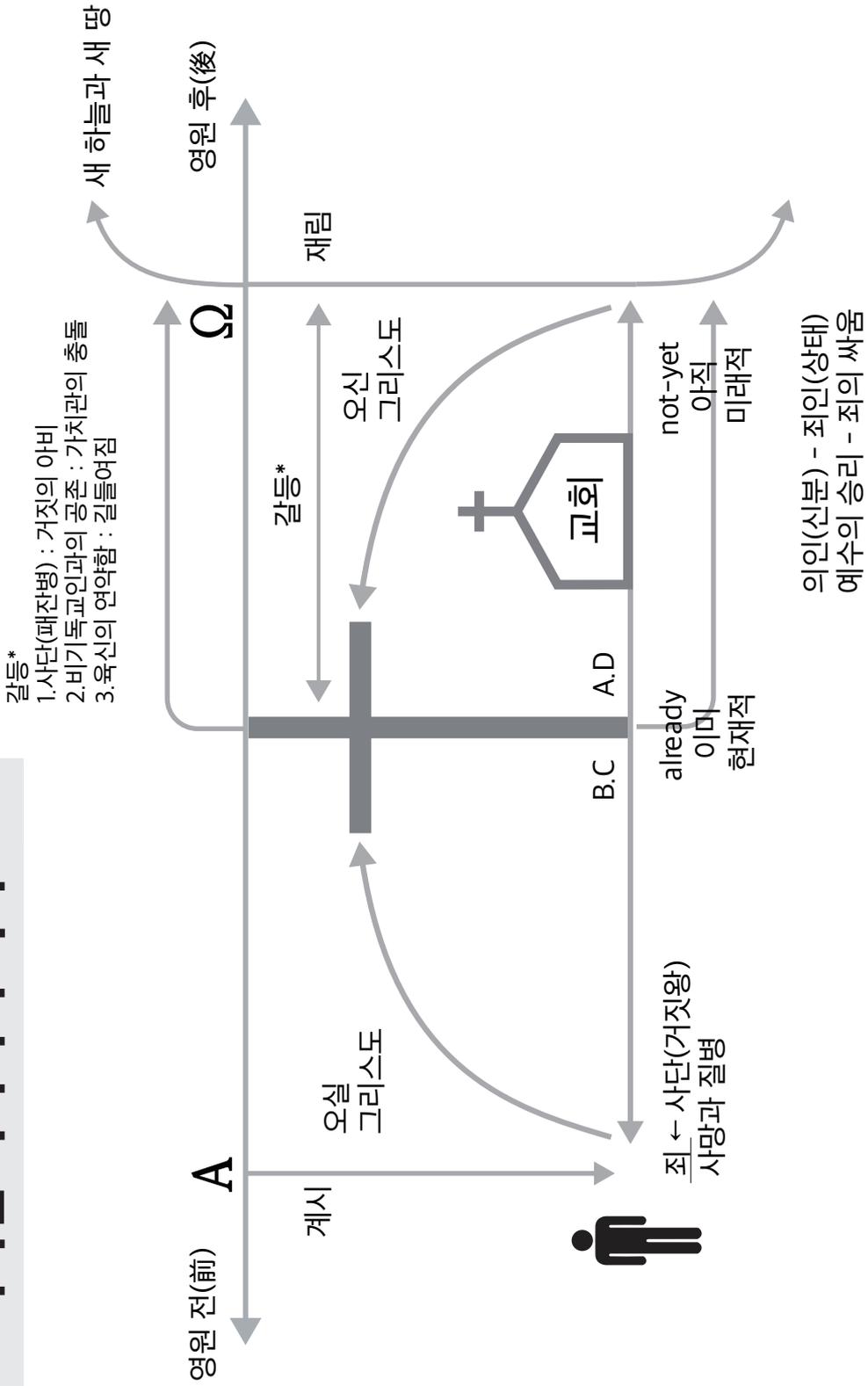
겔36:25~28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단7:13~14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결론

1.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냄. 믿음의 조상들, 할례, 출애굽의 경험, 율법과 성전, 선지자들의 외침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2.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를 씻고 마음에 법을 새겨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갈등*

- 1. 사단(패잔병) : 거짓의 아비
- 2. 비기독교인과의 공존 : 가치관의 충돌
- 3. 육신의 연합함 : 길들여짐